

2024년 제3차 이사회(임시) 회의록

일시 : 2024년 11월 5일(화) 11:00

장소 : 법인 회의실

의안

1. 제1호 의안 : 나눔터의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을 위한 실습지 취득 요청의 건
2. 제2호 의안 : 나눔터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 계획서 승인의 건
3. 기타 사항

사회복지법인 나눔복지재단

사회복지법인 나눔복지재단 2024년도 제3차 이사회(임시) 회의록

- 일시 : 2024년 11월 5일(화) 11:00
- 장소 : 법인 회의실
- 참석 : 이사 총수 8명 중 이승창 김상규 이경희 류지하 권순주 김도연 이영동 등 7명 참석, 감사 2명 중 박영근 1명 참석. 총 8명 참석(불참 이사 : 1명, 불참 감사 1명)
- 이사·감사 외 참석 : 나눔터 이수동 원장



의안

1. 제1호 나눔터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을 위한 실습지 취득 요청의 건
2. 제2호 나눔터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 계획서 승인의 건
3. 기타 사항

개회

- 의장(대표이사 이승창)이 참석한 이사들에게 의사정족수 출석을 알린 후 ‘사회복지법인 나눔복지재단 2024년 제3차 이사회(임시) 개회’ 를 선언하다. 오늘 심의할 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다.

1. 제1호 나눔터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을 위한 실습지 취득 요청의 건

의안 상정

- 의장이 의안 ‘제1호 나눔터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을 위한 실습지 취득 요청의 건’ 을 상정하고 이수동 나눔터 원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.

제안 설명

- 이수동 나눔터 원장이 참석한 이사와 감사에게 별도 배포자료1 나눔터의 신규사업으로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 발굴 과정’ 을 봐 달라고 요청하고 제안 설명을 하다.
- 이수동 나눔터 원장 : 자료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, 나눔터의 신규사업 발굴작업은 오래전부터 계속됐고 다양한 사업 중에서 영농으로 눈을 돌린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. 그때부터 법인 사무국장과 나눔터 시설장이 전국 20여 곳의 농장 및 영농 관련 복지시설 등을 둘러보며 ‘방울토마토의 재배와 판매’ 를 영농 분야로 정했습니다. 이는 3여년에 걸친 검토 결과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지난 2022년 말 군인(軍人) 수의 감소와 조달청의 군 피복류 물량 축소로 인해 주력사업이던 봉제부분 사업 물량이 절반가량

줄면서 영농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. 여기까지는 그동안 이사회 때마다 보고 드렸습니다.

- 이수동 나눔터 원장(계속) : 그리고 나눔터는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를 주력사업으로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초부터 직업훈련 교사 등 종사자 2명을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스마트팜으로 보내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. 이어 올해 3월에는 그 스마트팜(농업회사법인 맥 주식회사)과 나눔터가 업무협약(MOU)을 맺고 종사자 교육과 이용자(장애인근로자)의 체험활동도 해오고 있습니다. 이는 자료에 첨부된 업무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. 이렇게 하여 나눔터는 농지 등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영농사업으로 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를 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.
- 이수동 나눔터 원장(계속) : 따라서 나눔터는 영농사업의 핵심조건인 실습지, 즉 농지의 구매를 법인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오늘 이 건을 이사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



□ 질의응답과 토론

○ 의장이 참석 이사·감사에게 질의응답과 토론을 요청하다.

- 이경희 이사 : 그동안 이사회 보고를 통해 주력으로 해오던 봉제사업의 물량 감소와 영농사업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필요한 농지는 얼마 정도입니까? 자료에는 1,550평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, 실제 필요한 면적을 알고 싶습니다.
- 이수동 나눔터 원장 : 나눔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농지 면적은 말씀 그대로입니다.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농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1,500평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어서 경지정리가 된 한 필지를 필요로 합니다.
- 권순주 이사 :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과 대산면 일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 지역입니까?
- 이수동 나눔터 원장 : 첫째는 법인과 나눔터가 위치한 창원시 관내를 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판매 활동을 염두에 두고 창원시의 인구와 관공서, 기업의 수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. 셋째는 동읍과 대산면 지역에는 농지가 많고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,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이 많습니다. 이 역시 농사 및 판매정보 교류 등을 고려해서 요청한 것입니다.
- 박영근 감사 : 그 지역의 땅값은 어느 정도입니까?
- 이영동 상임감사 : 현재 평당 25만 원 전후입니다. 따라서 1,500평 정도이면 하면 3억 원에서 4억5천만 원 사이입니다.

- 이수동 원장 : 그 지역의 농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해본 결과 평당 20만 원 선으로 나타났습니다.
- 권순주 이사 : 농지는 농민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농지 구매가 가능합니까?
- 이수동 원장 : 사전에 파악해봤는데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등은 실습지로 농지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(2024년판 65쪽)에도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.
- 류지하 이사 : 농지구매를 위한 법인의 자금 사정은 어떻습니까?
- 의장 : 농지는 법인이 구매해서 나눔터가 사용해야 하는데 그 정도 자금은 법인에서 준비돼 있습니다.
- 의장(계속) :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농지의 위치와 가격 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이를 참고하여 우리 법인 이사회가 농지구매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.
- 김도연 이사 : 이 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의 필요성입니다. 제안 설명을 듣고 자료를 살펴보면 나눔터는 영농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또 봉제사업의 물량 감소로 인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실습지(농지)구매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. 농지구매 자금도 확보돼 있다면 이 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안에 동의합니다.



- 권순주 이사 : 재청합니다. 농지를 구매해줘서 나눔터가 멋진 스마트팜을 만들어 직업 재활시설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.
- 다른 의견이 없자 의장이 “농지구매에 반대하는 이사님과 감사님은 없습니까?” 하고 물었고 참석 임원들이 모두 “없습니다.” 하고 답하다.

□ 의결

- 의장 : 제1호 의안의 의결을 위해 다시 한번 찬반을 묻겠습니다. 먼저 찬성하시는 임원은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.
- 참석 임원들 모두 손을 들어 찬성을 표시하다.
- 의장이 제1호 의안 나눔터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을 위한 실습지 취득 요청의 건이 참석 임원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선언하다.

2. 제2호 나눔터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 계획서 승인의 건

□ 의안 상정

○ 의장이 제2호 ‘나눔터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 계획서 승인의 건’을 상정하다.

- 의장 : 제2호 의안은 사실 제1호 의안과 연결된 것입니다. 제1호 의안도 마찬가지로 이 안은 우리 정관 제26조(의결사항) 제5조에 해당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. 나눔터에서 올린 안을 법인의 이영동 상임이사가 검토했습니다. 이영동 상임이사는 이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바랍니다.

□ 제안 설명

- 이영동 상임이사 : 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이 안은 앞서 의결된 제1호 의안의 연결입니다. 제2호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. 영농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과정과 영농사업의 종류로 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를 선택한 이유는 자료와 일지형식의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십시오. 그 과정은 붙임자료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고 앞서 제1호 의안의 심의과정에서도 논의되었기에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이영동 상임이사(계속) : 일단 1,550평 내외의 농지가 구매되고 스마트팜이 만들어진다면 그곳에서 장애인근로자들과 방울토마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영농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. 그런데 농지가 구매되면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설치 등 스마트팜을 만드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. 이 과정이 짧게는 1년, 길게는 2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. 그게 완료되면 현재 일반 스마트팜과 같이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이 일은 우리 장애인근로자들이 맡게 될 것입니다. 이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에 따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이영동 상임이사(계속) :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데로 첫째는 스마트팜 형식의 직업재활시설이 됨으로써 나눔터가 선진 직업재활시설로의 새로운 변신이 될 것이고 둘째는 스마트팜 영농 수익은 임가공과 비교하면 몇 배 더 많아 장애인의 추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더 많은 임금을 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셋째는 농업은 식물을 키우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적 장애를 가진 나눔터 장애인근로자들의 정서 발달과 함께 그들의 행복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.



□ 질의응답과 토론

○ 의장이 질의응답과 토론을 요청하다.

- 권순주 이사 : 앞의 의안에 이어 제안 설명을 듣고 사업계획 자체는 이해 갑니다. 스마트팜이 되면 봉제사업과 같이 일반인을 고용해야 합니까?
- 이영동 상임이사 : 방울토마토의 재배와 판매는 장애인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.

니다. 그 때문에 직업훈련교사를 비롯한 전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. 다만 일이 급증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일용직을 채용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- 류지하 이사 : 사업계획서에는 네덜란드와 일본의 장애인들이 일하는 스마트팜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례는 없습니까?
- 이수동 원장 : 푸르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과 여주의 스마트팜을 2곳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. 시설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. 이 외에도 가까운 진주와 전북 전주, 경북 경주, 제주 등에 소재하는 다른 직업재활시설에서도 농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곳들이 있었는데 임가공 등을 하는 직업재활시설보다는 장애인근로자들이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.
- 이경희 이사 :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더 높은 임금을 말씀했는데,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까요?
- 이영동 상임이사 :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 이 부분을 사업계획서에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만 스마트팜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장애인 고용을 현재의 2배 가량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- 권순주 이사 : 제1호 의안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 의안과 연계가 되어 있어 필요한데 현재 특정된 농지가 있습니까?
- 이영동 상임이사 : 예.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농지는 있고 농지 주인과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. 그 농지의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죽동리이고 1,500평이 조금 넘는 경지정리된 농지 한 필지입니다. 가격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공시지가 선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. 아주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.
- 박영근 감사 : 만약 그 농지를 급하게 구매하려면 추경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?
- 이영동 상임감사 : 농지 구매가 확정된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업이고 금액도 많은 만큼 이사회를 열어 추경할 것입니다. 그러나 농지를 구매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고 또 연말에도 이사회가 예정돼 있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박영근 감사 : 영농사업을 하면 현재 나눔터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어떻게 합니까?
- 이영동 상임이사 : 같은 영농사업에 활용될 것입니다. 스마트팜에서 방울토마토가 생산되면 현재 공간으로 가져와 선별작업을 거쳐 박스 포장을 해서 시장으로 보내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컵 과일 등으로 포장하여 창원 시내 관공서나 기업체 등에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이런 작업을 통해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또 더 많은 장애인근로자도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
- 의장 : 중요 내용은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. 제1호 의안과 마찬가지로 질의응답만 계속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관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.



- 김상규 이사 : 앞서 1호 의안이 가결되었고 이 안은 의장님 말씀대로 1호 의안과 연결

돼 있으며, 나눔터도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 만큼 제2호 의안에 찬성합니다. 동의합니다.

- 다른 참석 이사 : (동시에) 재청합니다.

의결

- 대부분의 참석 임원들이 동의 의견을 표하자 의장이 동의 여부를 다시 물었고 모두 동의한다고 하자 의장이 제2호 의안 ‘나눔터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 계획서 승인의 건’ 의 가결을 선언하다.

3. 기타 사항

- 의장이 기타 사항을 묻자 참석 임원들이 “없다” 고 하다.

폐회

-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 (종료 시각 12:15)

위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임원들이 기명날인한다.

2024년 11월 5일

사회복지법인 나눔복지재단

대표이사(의장) 이 승 창 이승창 (인)

이 사 김 상 규 김상규 (인)

이 사 류 지 하 류지하 (인)

이 사 이 경 희 이경희 (인)

이 사 권 순 주 권순주 (인)

이 사 김 도 연 김도연 (인)

이 사 김 회 운 김회운 (인)

이 사 이 영 동 이영동 (인)

감 사 박 영 근 박영근 (인)

감 사 손 희 상 손희상 (인) 孫 希 相



2024년 제3차 이사회(임시) 별도 배포 자료 목록

1. 제1호 나눔터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을 위한 실습지 취득 요청의 건 관련
 - 나눔터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을 위한 실습지 구매 요청 공문 1부
2. 제2호 나눔터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 계획서 승인의 건 관련
 - 나눔터 영농사업(방울토마토 재배 및 판매) 계획서 공문 1부. 끝.

